

서유럽 주식시장 동향(11월) 및 12월 전망(2017.12.4)

박성우

☎ 82-2-3774-0451

✉ p3swo@futures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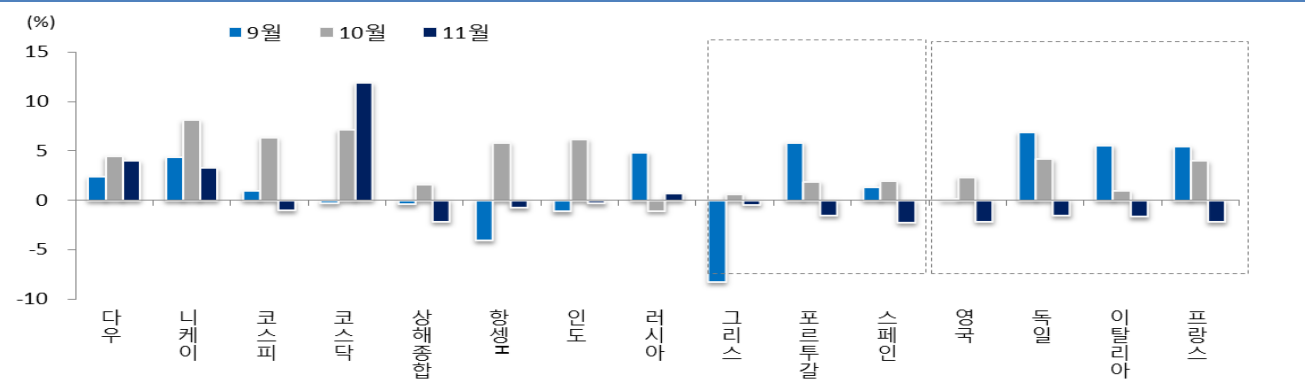
[11월 동향]

■ 11월 서유럽 증시는 비둘기적인 BOE회의 결과와 긍정적 경제지표에도 영국 및 독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하락하였습니다. 월초 미 세제안 개편 및 실적 기대를 바탕으로 독일 및 영국 주가 지수가 신고점을 이어갔습니다. 다만 미 세제안 지연과 함께 영국, 독일 등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증시는 약세를 보였습니다. 11월 중 유로화가 달러대비 강세를 보인점 역시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.

[12월 전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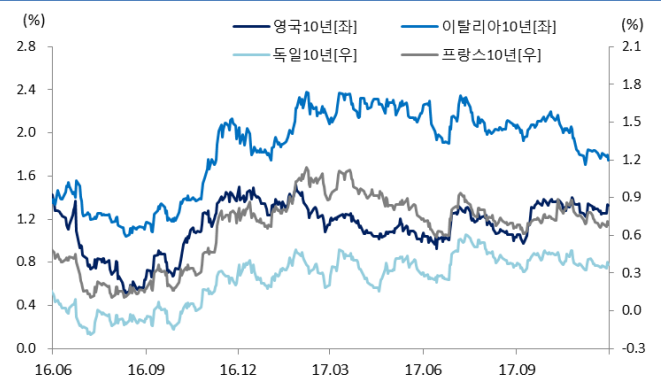
■ 유로존 10월 제조업PMI의 상승, 실업률 하락 등 경제지표가 전월에 이어 호조를 보이고 각종 서베이 지표 역시 호조를 보이는 등 경기 개선 인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유로존 증시에 긍정적입니다. 상원을 통과한 미 세제 개편안 역시 위험 자산 강세 심리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미 세제안 기대 및 12월 FOMC를 앞두고 달러화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점은 상대적 유로화 약세를 유발,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다만 독일발 정치적 리스크의 재부각 및 브렉 시트 협상 지연 등은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.

차트. 주요국 증시 월간 등락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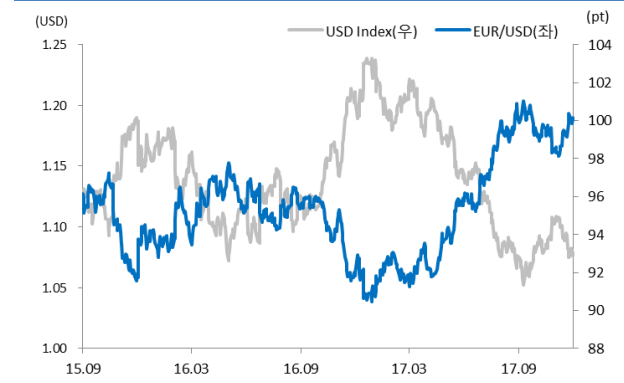
출처: 연합인포맥스, NH선물 리서치센터

차트. 서유럽 주요국 10년 국채수익률



출처: Bloomberg, NH선물 리서치센터

차트. 유로-달러 환율, 달러인덱스



출처: Bloomberg, NH선물 리서치센터

차트. 서유럽 주요국 증시 추이 (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영국, 독일, 그리스, 프랑스)



출처: 연합인포맥스

[유로존 11월 주요 경제지표 및 이슈]

- ▶ 독일 11월 CPI 1.8%(YoY) 전월 1.6%, 0.3%(MoM) 전월 0.0%
- ▶ 유로존 10월 마르킷 제조업 PMI 58.5, 전월 58.1, 서비스업 PMI 55.0, 전월 55.8
- ▶ 유로존 11월 ZEW 서베이 예상 30.9 (전월 26.7), 11월 섀프츠 투자자기대지수 34.0(전월 29.7)
유로존 11월 경기체감지수 114.6(전월 114.0)
- ▶ 독일 11월 IFO 기업환경지수 117.5(전월 116.8), 경기동행지수 124.4(전월 124.8)
향후 6개월 기업전망지수 110.0(전월 109.2), ZEW 경기기대지수 18.7(전월 17.6)
- ▶ 유로존 9월 산업생산 MoM -0.6%(전월 1.4%), 산업생산 YoY 3.3%(전월 3.9%)
- ▶ 유로존 10월 CPI MoM 0.1%(전월 0.4%), CPI YoY 1.4%(전월 1.5%), 근원CPI YoY 0.9%(전월 0.9%)
9월 PPI MoM 0.6%(전월 0.3%), PPI YoY 2.9%(전월 2.5%)
- ▶ 유로존 9월 소매판매 3.7%(YoY) 전월 2.3%. 소매판매 MoM 0.7%(전월 -0.1%)
- ▶ 유로존 11월 소비자자기대지수 0.1(전월 -1.1)
- ▶ 유로존 10월 실업률 8.8%, 전월 8.9%
- ▶ 11월 BOE 회의에서 정책금리 25bp인상(0.5%). 완만한 금리인상 시사로 당일 10년 국채금리 하락, 증시는 상승.
- ▶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·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의 연정 협상이 결렬되며 독일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.
다만 월말 사민당과의 연정 구성 가능성 확대 및 메르켈 총리에 대한 지지율 반등으로 정치적 리스크는 소폭 완화.

본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당사 고객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로서 본 조사자료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,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파생상품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손실할 수 있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(www.futures.co.kr) 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